

중국 사체 신장이식의 단기성적-국내 사체 신장이식 성적과의 비교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차란희 · 이태우 · 오국환 · 안규리 · 한진석 · 김성권 · 이정상 · 김연수

목적 : 우리나라에서 신장이식은 공여자 부족과 뇌사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대기환자가 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장기이식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. 그러나 해외에서 이식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경과 및 성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. 연구자들은 중국에서 사체 신장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임상상을 알아보고 이를 국내의 사체 신장이식 성적과 비교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2002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중국에서 신장이식을 받고,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유지 면역치료를 받고 있는 43명의 환자와 2000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체 신장이식을 받은 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상을 비교 정리하였다. 이식 신 기능부전 관련 위험 인자, 추적 사구체 여과율, 이식 후 거부반응, 중앙, 감염, 신독성, 만성 이식 신병증의 발생여부 등을 조사하였다. 이식 신 소실은 이식 후 신 대체요법의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.

결과 : 중국 신장이식 군과 서울대학교병원 신장이식 군의 평균 추적 기간은 14.1개월과 27.2개월로 우리병원 사체 신장이식 군이 길었다 ($p=0.001$). 양 군 간에 인구학적인 차이는 없었으며, 원인 질병과 기존의 신 대체요법, 이식 전 혈청 크레아티닌치, 재이식 여부도 차이가 없었다. 중국이식 후 첫 내원까지의 기간은 평균 25일이었으며, 같은 시기의 MDRD로 구한 사구체 여과율, 이후 6개월 및 1년의 사구체 여과율은 양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마지막 사구체 여과율은 우리병원이식 군에서 64.1 mL/min로 중국이식 군의 55.0 mL/min에 비해 높았다 ($p=0.02$). 양 군 모두에서 수혜자의 원인질환, 고혈압 여부, 당뇨 여부, 기존의 신대체요법의 종류 등은 조사한 모든 시기의 사구체 여과율과 관련이 없었다. 그러나 우리병원이식의 경우, 수혜자의 연령과 최초 사구체 여과율 및 마지막 사구체 여과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($p=0.022$, $p=0.017$). 이식 후 감염증의 발생은 중국이식 환자 군에서 높았으며 ($p=0.00$), 이 중 속립성 결핵, Pneumocystis 폐렴,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등은 중국이식 군에서 8례, 우리병원이식 군에서 2례 관찰되었다. 수술 관련 합병증은 중국이식 군에서 5례, 우리병원이식 군에서 2례가 있었고, 급성 거부 반응은 양 군에서 각각 17례가 있었다. 이식 신 소실은 중국이식 군에서 4명, 우리병원이식 군에서 1명 있었으며 중국이식 환자 중 2명이 사망하였다.

결론 : 국내 신장이식 군에서 더 높은 최종 사구체 여과율을 보였으며, 중국 신장이식 군에서 감염의 빈도, 수술합병증, 이식 신 소실 및 사망례가 많았다. 향후 신기능과 합병증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, 해외 이식기관과의 이식 적응증 및 초기 치료방법에 대한 적절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.